

# ‘신천 10·13반공의거’의 재조명과 전사적 의의

柳 太 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획운영실장)

1. 머리 말
2. 남북분단과 반공의거의 배경
3. 유엔군의 북진과 군정
4. 신천 10·13반공의거의 발발
5. 공산군의 보복과 의거군의 유격투쟁
6. 맺 음 말

## 1. 머리 말

북한의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에는 군사박물관이 있다. 1957년도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북한이 소위 ‘미군의 양민학살’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북한은 박물관 건립이래 지금까지 이곳을 ‘미제 학살기념 박물관’으로 부르면서 반미 선전장으로 이용해오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중 신천군에서만 무려 3만 명 이상의 양민이 미군에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남측의 일부 학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주장 그대로를 논문에 인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유포되고 있는 형편이다.<sup>1)</sup> 또한 방북작가로 잘 알려진 황석영의 소설 『손님』에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당시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인류 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규모적인 인간 살륙 만행을 감행함으로써 20세기 식인종으로서의 야수적 본성을 만천하에 날뉘어 드러내 놓았습니다. 흡혈귀 信川지구 주둔 미군사령관 해리슨<sup>2)</sup> 놈의 명령에 따라 감행된 신천 대중학살은 --(중략)-- 52일 동안에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383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는 천주에 용납 못할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북한의 각종 출판물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오늘날 날까지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전해져 오고 있다. 예컨대 『조선전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사』,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에서 2000년에 발간한 『학습참고자료』 등에서 한결같이 북한의 공식적 주장이 판에 박은 듯이 기록되어 있다.<sup>3)</sup>

1) <http://sociology.dongguk.ac.kr/kang> 또는 <http://kilsp.jinbo.net/publish/2000/0008914.htm> 에는 강정구교수가 쓴 논문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黃海道誌編纂委員會, 『黃海道誌』(1981), 314쪽. 북한이 기술하고 있는 ‘해리슨 유엔司官’은 근거불명임. 미 제24사단에서 ‘해리슨’이란 이름을 가진 장교는 1950년 10월 19일 당시 2명이 존재했는데, AG 330.32-GP, SUBJECT: Roster of Officers, 19 October 1950에 의하면 해리슨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26AAA AW BATTALION의 HARRISON, CHARLES W. Capt Arty SN01167890와 724TH ORDNANCE COMPANY의 FITE, HARRISON E. 2nd Lt OrdC SN02262283 2명이 있었다. 기타 제19연대, 제5연대와 21연대에서 HARRY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는 대위 1, 중위 2, 소위 1명뿐이다. “미 제24사단 장교명부(1950. 10.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38.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 언론 일각에도 상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마치 실제했던 사실인 것처럼 인용, 보도되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많은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신천 반공의거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57년도에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조동환(趙東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의 햇불』이란 책을 발간하면서부터였다.<sup>5)</sup> 1950년 10월 13일 당시 조동환 등과 같이 당시 김일성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봉기에 참여했던 자들은 반공의거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을 ‘신천 반공의거’, 혹은 ‘10·13의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선 1955년도에 국방부에서 『구월산』이란 책을 통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sup>6)</sup>

이렇듯 신천사건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자는 과연 북한이 주장하는 ‘신천 학살극’이 역사적인 진실이었는지 당시의 전투기록문서들을 정밀 분석하고, 사건의 발생원인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 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6권(1981년), 129~132쪽. 사회과학출판사, 『조선통사』(하), 1987년, 430~433쪽에도 신천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강석희, 『조선전사』 26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년), 124~125쪽; 「인민군 총정치국 비밀문서 독점입수-6·15회담 직후 金正日의 무력통일 준비 지시 전문」, 『월간 조선』 2002년 3월호, 64~81쪽에서 재인용.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조선인민군출판사에서 2000년에 발간하였으며 문서 제목은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 소재목은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베틀 데 대하여」이다. 이 책에서는 신천사건에 대하여 “어제날 신천땅에서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던 승냥이 미제놈들과 오늘의 미제놈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언급돼 있다.
- 4) 참혹한 학살사건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서해안 신천에서 일어났던 부녀자 400명과 어린이 100명의 집단 학살이다. 「미군의 양민학살 북한서도 자행」, 『한겨레』 1999년 10월 31일. 주2 황석영의 소설을 참조하라.
- 5) 趙東煥, 『抗共의 햇불-黃海 10·13反共學生義舉鬪爭史』(서울: 普文閣, 1957년), 580쪽; 해군본부 정훈감실, 『해군일화집』 제2집(1969년), 57쪽에는 ‘신천치안대’라는 기록이 있어 신천의거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남기고 있다.
- 6) 국방부, 『구월산』(단기 4288[1955]년 6월, 국방부 정훈국), 3~8쪽에는 제령, 신천에서 처음 무장봉기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이 국내에서 기록된 출판물로는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신천박물관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동기를 고찰하면서, 이 사건이 당시 작전에 미친 전투사적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의거와 관련된 내용은 의거에 참여한 이들의 공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린다는 목적에서 상기 조동환의 회고록 내용을 재구성하고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 2. 남북분단과 반공의거의 배경

### (1) 황해도의 역사적 배경과 도민의 기질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그 사건을 태동시킨 시대적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신천 반공의거 뒤에도 황해도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먼저 황해도 도민의 기질과 그 기질을 형성시킨 자연환경을 고찰하는 것이 논술전개의 바른 순서일 것이다.

신천군은 황해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의 멸악산맥과 북서쪽의 구월산 고지군 사이의 산지를 이루는 준평원이 펼쳐져 기름진 재령평야의 일부를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리원에서 장연을 동서로 잇는 사장선 철도가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현재 북한의 신천군은 서부지역의 일부가 삼천군으로 분할되어 축소되었다.<sup>7)</sup>

황해도민들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정서, 혹은 국가관은 조선시대의 유서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즉 유서정책으로 말미암아 황해도에서는 고관대작이 나올 수 없었던 관계로 반상의 구별이 심하지 않았다. 이런

7) 신천군은 현 북한의 행정구역상으로 황해남도의 중부에 있는 군으로서 북부는 안악군, 서부는 삼천군과 태탄군, 남부는 벽성군과 신원군, 동부는 재령군과 잇달아 있다. 이 글에서 신천군은 삼천군과 안악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권(1991. 11), 522~528쪽, 황해도편 참조할 것.

배경은 새로운 문화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전통의 구속력이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구한말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 지역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 신실한 기독교신자가 많았던 까닭은 그들이 그만큼 일제의 신앙탄압에 항거했음은 물론이요, 종교를 아편쯤으로 여기는 공산주의 지배에도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sup>9)</sup>

황해도와 재령평야와 연백평야를 비롯한 넓은 들과 풍부한 지하자원은 이곳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적 윤택하게 하였으며, 황해도민들이 관습의 굴레보다는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경향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는 한반도 남부의 다른 곳과 달리 소작농이 비교적 적고 자작농이 많았던 것에 기인한다.

또한 황해도민의 자유로운 사상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시대적 배경과 이곳의 풍요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더욱 성장하여 조선말기 이 땅에 전파된 천주교와 기독교를 활발하게 흡수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기독교사상의 흡수는 많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신문화 섭취와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였다. 구한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배출된 것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였다. 해주에서 출생하여 신천에서 성장한 안중근, 은율 출신의 김구, 재령출신의 나석주와 이승만 등, 그야말로 황해도는 항일투쟁과 광복운동의 역사상 큰 인물들을 배출한 민족주의의 요람 지역이었다.<sup>10)</sup>

이 같이 자유롭고 민족주의적인 황해도민의 기질은 일제 강점기에도 토착 공산주의 세력이 거의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며, 해방 후 소련군이 진주한 뒤 북한의 5도에 공산당 조직을 결성했을 때 황해도는 공산정권수립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황해도는 해방과 동시에 비극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9) 이경남, 『黃晳暎 소설 ‘손님’의 波長과 信川 ‘학살博物館’의 虛構(中)』, 『한국발전 리뷰』 제106호(2001년 9월). <http://www.hanbal.com/review/review105/chojum2.htm>에서 인용.

10) 이경남, 상계서 참조.

## (2) 분단의 비극과 반공의거의 불씨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제패망은 조국독립과 자유를 염원한 한민족에게 또 다른 비극을 가져왔으니 바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이다. 얄타협정에 따라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에 소련군이, 남쪽에 미군이 진주하게 됨으로써 한민족 스스로 자주적인 정치체제의 건설을 시도해 볼 기회도 없이 각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북에서는 소련군의 비호와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 일파가 1946년 2월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한 후 공산주의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하여 지주와 부농계급의 재산을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은 대지주, 중농, 자작농, 소작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평온한 마을공동체에 급격한 사회변혁을 가져왔다. 현물세나 토지개혁과 같은 사회변혁은 경제체제 면에서 농민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현물세는 이전의 소작제보다도 더 가혹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지주와 부농계층이 겪게 된 재산상의 박탈과 심적 당혹감은 매우 컸다. 당시 북한공산정권은 3할 4부의 현물세를 징수하는 외에, 해방의 '은인'인 소련군에게 헌납한다는 명분으로 '성충미'와 '애국미'의 명목으로 세금을 강제 징수하였다.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실시한 초기 사회주의정책에 방해가 되는 지식인, 종교인, 지방유지들로 구성된 자치회나 치안대의 지도자들을 민족의 반역자나 반동분자로 몰아 공산정권에 맹종하는 단체조직인 공산청년동맹 적위대들의 폭력으로 강제추방하거나 불법투옥, 학살 그리고 추방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또 공산주의사상을 강제로 전파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의 이상화교육과 이에 방해가 되는 종교탄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종교적인 탄압을 피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월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탈출의 기회를 놓쳤거나 가족사정으로 월남할 수 없었던 반공주의자들은 도피의 세월을 보내야 하였다.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는 공산주의자들 앞에 애국민족지사는 방해세력일 뿐이었다. 여기서 애국민족지사란 곧 김구와 이승만을 가리킨다. 공산정권이 주민 세뇌용으로 내걸은 선동적인 표어중의 하나는 “살인·강도·방화단의 두목 김구, 이승만을 타도하자!”는 것이었다. 즉 공산혁명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적이 김구 주석과 이승만 박사라고 생각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표어를 모든 마을마다 현수막으로 걸거나, 혹은 건물 담장과 교량, 직장 정문 등에 페인트 글씨로 써 붙였다.

이처럼 공산정권이 황해도에서 배출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하여 난폭한 선전으로 매도한 행위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심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표어의 문구 속에 있는 김구와 이승만 이름 위에도 ‘가짜장군 金日成’이라고 쓴 종이를 덧붙인 사건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등 반공사건이 줄을 이었고, 반공의식 또한 확산되었다.<sup>11)</sup>

물론 당시 남한에서도 공산주의 이념에 의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북한에서 더욱 극심하였다. 그러나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추진한 강력한 경찰국가인 북한에서 반공주의자들의 활동은 지속될 수 없었다.

한편 6·25전쟁을 도발한 김일성정권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전쟁에 모든 노력과 자원을 동원하였는 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역에 걸쳐 학생을 포함한 청장년 전체를 징집할 수 있도록 서명 날인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공산정권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징집을 위하여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압적인 서명이었다.<sup>13)</sup> 이로 인한 북한 주민의 반공저항의식은 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 정권의 북한군은 남침후 짧은 시일 안에 낙동강선까지 진출하였

11) 이경남, 전계서 참조.

12) 남한 내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2·7폭동, 제주도사건, 여순사건, 대구반란사건 등을 들 수 있다.

13) 조동환, 전계서, 41쪽.

으나, 낙동강 전선에서의 공격실패로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 김일성 정권은 붕괴직전까지 몰렸다.

유엔군의 반격에 직면한 김일성은 후퇴시 북한 지역에서 ‘적성분자’와 ‘반동분자’들을 미리 색출하여 처단하도록 ‘대학살 지령’을 내렸다.<sup>14)</sup> 이러한 내용은 일부 북한군의 노획문서 속에서도 발견된다.<sup>15)</sup> 북한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양민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불만에 쌓여있는 황해도민들의 반공의식을 무장투쟁의 반공의거로 표출케 하였다. 요컨대 북한 공산정권이 자행한 양민학살이 신천 반공의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다.

### 3. 유엔군의 북진과 군정

김일성은 8월 15일 전까지 남한 전역을 석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기습남침공격 후 일거에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 김천을 거쳐 낙동강선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였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민군병력의 손실을 메우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군사동원을 강화하였다. 인민군 부상병들의 대량 후송과 미 공군기의 북한폭

14) 김일성은 연설문 속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하게 될 지역에서는 간첩, 파괴분자들을 적발하여 처단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 낙오하는 자, 비겁한 자 등 반동분자들을 가차 없이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은 건결한 투쟁을 전개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6권(1981년), 95쪽; 『김일성 저작집』 6권, 143쪽에서 재인용.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북한군사관계사료집 1』, 2001년, 540, 237, 492쪽.

격은 공산정권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상황을 의심케 하였으며, 그로인해 반공정신에 투철한 학생, 청년들로 하여금 괴뢰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회피하고자 피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동시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일대 반격이 실시되어 인민군은 일로 패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과정에서 그들이 신천 인근지역에서 전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양민들을 학살하였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당시 작전부대인 미 제1군단을 중심으로 한 작전계획과 북진과정을 살펴보고, 그 점령과정에서 미군의 군정 실시 여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계획과 미 제1군단의 북진<sup>16)</sup>

38도선까지 진출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결행하였다. 그 가운데 1950년 10월 2일 하달된 유엔군 총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를 접수한 미 제8군은 다음날 작전명령 제103호로 예하 전 군단에게 북진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장차 실시될 38도선 돌파에 대비하여 임진강 서안으로 부대를 이동 집결시키고, 중부전선의 국군 제2군단은 의정부에서 춘천을 연하는 선으로 진출하며,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연포에서 주문진을 연하는 선으로 진출하여 곧 시행될 북진작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 예하 제3보병사단은 10월 2일 이미 38도선을 돌파하고 북방 14km 지점인 양양을 점령한 후, 다음 목표인 속초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 북진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각 부대간 치열한 북진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10월 3일의 북진 준비명령에 이어, 10월 5

16) 國防部, 『韓國戰爭史』 4권, 1971, 395~669쪽.

일에는 정식으로 예하부대에 38도선 돌파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의 국군 제1군단은 원산을 목표로 진격하고, 중부의 국군 제2군단은 화천-금화-창도리 방향과, 연천-철원-평강-세포리 방향으로 진격하며, 미 제1군단은 미 제8군의 주공군단으로서 평양을 공격 점령한 다음 정주-영원-함흥을 잇는 맥아더선을 목표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미 제1군단장은 이 공격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북한군이 부대를 재편하고 신편 예비부대를 투입하여 견고한 축차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신속히 진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주공사단이 지향하게 될 개성-평양 축선에는 기동력과 화력을 보유한 미군 2개 사단을 교대로 투입하기로 하고 작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군단의 주공으로 개성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하여 금천 일원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한 다음, 계속 남천점-사리원-황주-평양 축선으로 진격한다. 미 제24사단은 일부병력으로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고 군단 예비로서 언제든지 미 제1기병사단을 초월공격할 준비를 하며,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우익으로서 고량포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한 다음 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시변리-신계-올리-평양 축선으로 진격한다.

미 제1기병사단은 영국군 제27여단을 배속받은 후 10월 5일 임진강을 도하, 복진을 개시하여 7일 개성진입을 거쳐 8일 예성강 동안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배천, 송악산, 한포리를 거쳐 14일 금천을 점령한 후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평양에 이르는 축선의 중요한 요충지인 사리원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격하였다.

10월 15일 오후부터는 폭우로 인해 도로가 온통 진흙밭이 되어 기병사단의 진격은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 기상악화로 진격속도가 늦어지자 군단장 밀번 소장은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과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에게 “사리원을 먼저 점령하는 사단에게 평양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영광을 줄 것”이라고 진격경쟁을 부추겼다. 이에 양 사단 장병들 간에는 진격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진격작전에 임한 모든 부대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

이었다. 심지어 같은 사단내의 부대간에도 서로 먼저 평양을 점령하려는 경쟁심과功名심이 불타고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평양탈환작전시 선두 입성을 위하여 각 사단간 사리원 점령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지만, 진격로가 좁고 굴곡이 심한 지방도로를 우회기동하여야 하는 서측방의 미 제24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보다 훨씬 더 불리하였다.

제21연대는 10월 17일 해주를 점령하였으며, 제19연대는 청석두리에서 신원리-재령을 경유하여 사리원 남쪽 약 10km 지점까지 진격하였으나 사리원이 이미 미 제1기병사단에 점령되었으므로 군단장은 항공기에서 전언통신문을 투하하여 미 제24사단의 사리원 진격을 중지시켰다.<sup>17)</sup>

10월 18일 미 제24사단은 진로를 해주, 재령에서 진남포 대안방향으로 전환하여 진격하고, 평양이 탈환되던 10월 19일에는 온정리를 경유하여 서해안의 진남포 대안까지 진출하게 되었다.<sup>18)</sup> 이때 미 제24사단은 해주에서 사리원에 이르는 황해도 서측의 적을 소탕하고 철도와 도로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sup>19)</sup> 10월 19일 평양탈환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미 제24사단은 평양 북쪽의 선천을 향하여 진격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받은 후, 22일 평양에 집결하여 복진준비를 갖추고 영연방 제27여단을 배속받아 진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보병사단은 신천, 재령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군단의 우측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진격상황은 생략하기로 한다.

17) “미 제24사단자료 작전전문철 No. 27”, Journal No. 375, 1950. 10.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47.

18) “WAR DIARY, I US CORPS(2 OCT.~8 NOV. 1950), Time of Action 201700, Time Recorded 291400, Authority G-2, Act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42.

19) “WAR DIARY, I US CORPS(2 OCT.~8 NOV. 1950), Time of Action 191800, Time Recorded 281400, Authority G-3, Act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42.

## (2) 유엔군의 군정실시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통치권 행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권리였다.<sup>20)</sup> 따라서 북한에서의 점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북한의 행정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sup>21)</sup> 이것은 1950년 10월 12일의 유엔 소총회(Interim Committee)에서 결의한 “북한에서는 유엔군의 관할하에 임시적으로 군정을 실시한다”는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었다. 미국 행정부와 유엔이 북한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소련이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정부구성이라는 유엔총회의 일관된 결의 때문이었다.

북한 점령지역에서의 유엔군의 군정계획은 미 육군성의 ‘유엔군 작전명령 제2호’ 부록 I 의 민사문제(ANNEX I-CIVIL AFFAIRS)를 통하여 10월 7일에야 구체적으로 하달되었다. 미 제8군은 이를 기초로 10월 9일 북한에서의 행정명령 제26A호를 하달하였다. 한국정부는 유엔 소총회의 결의를 수용하여 11월 16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입국에 맞추어 이들과 협상할 정부대표들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이 협조계획은 11월 24일 시작된 중국군의 제2차 공세로 말미암아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하게 되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sup>22)</sup>

유엔군이 진격한 서북부 지역인 황해도, 평안도에서는 미 제1군단이 평양을 점령한 10월 19일 이후 본격적인 군정이 시작되었다. 동북부 지역인 강원도, 함경도에서는 국군이 원산을 점령한 10월 10일부터 국군의 군정이 실시되었고, 10월 26일부터는 미 제10군단이 관장하였다.

미 제24사단은 점령한 해주에서 군정을 실시했다. 미군 측은 민사군정책임자로 딘 중령(John J. Deane)을 중심으로 장교 4명, 사병 3명으로 민사

20) 徐鏞瑄, ‘古領定策’, 『韓國戰爭研究』(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5년), 91~126쪽.

21) 國防部, 『韓國戰亂 1年誌』, A-77쪽.

22) 서용선, 전계서, 85~86쪽.

군정반을 구성하였으며,<sup>23)</sup> 10월 17일 해주에 입성한 후 채병지, 서용석, 채병준을 각기 황해도지사, 해주시장, 경찰국장으로 임명하였다.<sup>24)</sup>

그런데 황해도지역에서는 자생적 조직인 치안대가 적색분자들을 색출하고 패잔병과 지역의 좌익 게릴라의 습격으로부터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치안유지에 노력하였으나, 해주와 같이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군정을 실시한 곳에서만 이들의 활동이 군정에 흡수되었다.

10월 21일 미 제1군단은 군단 민사참모가 중심이 되어 평양에 군정기구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지의 유지들을 행정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10월 22일 평양시장을 임명하고, 24일에는 한국인 12명으로 평양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sup>25)</sup>

그러나 유엔군은 군정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평양탈환작전에 이어 압록강과 두만강이 위치한 한·중 국경으로 진격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미군은 단지 북한지역의 완전한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에만 몰두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인 군정은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군정을 시행하기 위해 후방지역으로 병력을 차출해 전투력을 낭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양에서의 군정도 12월 4일 평양철수 결정과 함께 종료되고 말았다. 따라서 평양과 해주 이외에 서북부 지역의 어느 곳에도 유엔군이 군정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이는 군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중국군의 참전으로 북한에서 후퇴하게 되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신천과 같은 작은 읍 단위 지역에서 유엔군의 군정은 실시될 수가 없었

23) 구체적 근거는 미 제21연대가 해주를 점령한 이후인 21일자 정기인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미 제21연대 부대보고철”, 정기인사보고철 No.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47.

24) “미 제21연대 부대보고철”, 부대현황보고 No. 103, 104, 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48.

25) 서용선, 전계서, 103~104쪽.

다. 따라서 미 군정이 실시된 적도 없는 지역에서 해리슨 군정사령관에 의하여 수많은 신천군민이 학살당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4. 신천 10·13반공의거의 발발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 신천에서 봉기한 반공의거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 의거는 장기간 치밀한 조직구성과 장비준비를 거친 것이다. 황해도에서 무장 봉기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 성공적이었지만 사건과 관련된 당시의 상세한 기록을 남긴 곳은 신천 의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의거군의 일원이었던 조동환이 1957년에 저술한 『抗共의 불꽃—黃海 10·13반공학생의거 투쟁사』를 요약하면서 1950년 당시 이들에 대한 또 다른 기록물의 존재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 (1) 신천 반공조직의 탄생과 활동

1950년 7월 1일 북한정권은 전국의 북한 청장년들에게 솔선하여 군대에 자원입대한다는 서명 날인식을 위협과 공갈로 강제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강제징집에 북한정권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천 고급중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반공학생회는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동년 7월 3일 신천읍 사직리에 위치한 김기한 학생의 집에서 교사와 학생 약 30여명이 모인 최초의 비밀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북한당국의 강제징집에 응하지 말고 구월산으로 입산하여 구국대업에 헌신하기로 결의한 후 7월 4일 정찰대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2개조로 나누어 구월

산 불당골을 거쳐 박명구 부대에 합류하였다.

박명구 부대는 구흥면 삼천온천 일대의 유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가입한 민주당 당원 위주인 약 20여명의 청장년들로 구성되었는데, 6·25남침 전쟁 발발 후 공산당들의 만행을 피하고자 구월산으로 집단 입산하여 조직한 유격대였다. 입산한 학생들의 일과는 오전에 군 복무경험자들로부터 유격전술, 무기조작법 등을 교육받고, 오후에는 토벌대의 기습에 대비하여 경계와 전투준비를 유지하며, 야간에는 연락소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식량을 확보, 운반해 오는 것이었다. 신천읍내에 잔류하고 있는 반공학생회에서는 동지 포섭, 무기노획 및 수집, 구월산 입산학생에 대한 식량보급, 인민군으로 징집되지 않는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7월 15일까지 반공학생회에서 포섭한 인원은 최소 250명 이상이었다.<sup>26)</sup>

7월 17일 반공학생회 주최로 각 대표회합에서 반공학생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반공학생회를 ‘구국동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직 부서를 결정하였다. 그 부서로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정, 조직, 선전, 정보, 학생대, 구월산유격대에 대한 책임자를 결정하였다. 또 신천고 급중학교 등 각 학교별 책임자와 함께 북부면 등 각 면에 대한 면단위 책임자도 임명하였다. 이들은 비밀유지, 연락유지 방법 등, 조직의 안전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였으며, “공산독재를 타도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하였다.<sup>27)</sup>

26) 구체적인 참가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신천농업전문학교 3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신천중학교 5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신천여자중학교 2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신천동명학교 수명의 교사, 달천중학교 3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노월중학교 2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신천천주교회 교인 다수, 신천기독교회 김익두 목사를 포함한 교인 다수, 신천읍 유지 이배식 외 8명, 신천 일반청년 수십명, 북부면 50여명, 노월면 20여명, 산천면 수십명, 용진명 50여명, 구흥면 민주당원이 주체가 된 종교인, 유지, 지식인, 온천면 수십명이었다.

27) 결의문 내용은 ① 우리들 회원은 민족의 자유와 우방과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한다. ② 우리들 회원은 동지와 우방국민을 사랑하며 공산독재를 타도한다. ③ 우리들 회원은 애국청년과 동지들을 포섭하여 대열강화에 헌신한다. ④ 우리들 회원은 각자의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⑤ 우리들 회원은 대열의 비밀을 엄수한다 등이다.

8월 초순 구국동지회는 재령광복회와 서로 연락을 유지하게 되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직으로 신천광복회를 편성하여 재령광복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신천읍 공산당 당기관과 학교당국에서는 그들의 감시당에서 학생들이 사라지자 예방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학생들에 대하여 강제징집을 실시하여 많은 청년과 학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점점 심해지는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구월산에 입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9월 5일에는 구흥면 삼천은천 인근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던 학생과 청년 52명이 구월산 유격대로 입산하였고, 북부면 수철리 청년 13명도 입산하였다. 또 어떤 청년들은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강제징집의 위기를 벗어난 구국동지회에서는 유격대원들의 조직문제와 월동대책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합을 가진 후, 구월산유격대에 '합동참모부'를 조직하여 대장, 부대장, 제1대대장, 제2대대장, 제3대대장, 공작대, 총무, 선전부, 훈련부, 보급부 등을 구성하였다.

9월말 이후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에서 총반격전으로 전환하자 북한정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주민들을 총동원 하였다. 북한정권이 북한내의 만17세부터 만50세까지 청장년들을 총동원하도록 비밀지령을 내렸다는 말이 유포되면서 강제징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공산당이 황해도 곡창지대에서 미리 징수한 양곡들을 구월산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하였다. 구월산유격대는 양곡을 운반하던 행렬을 습격하여 양곡과 호송대원의 무기를 탈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시기에 구국동지회에서는 10월 10일 적서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유격대를 신천군내 각처로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2) 공산당의 학살 기도

북한인민군의 패주와 더불어 공산당간부회의에서는 당원 1인당 요시찰인

물인 지주, 지식인, 교인, 우익계의 학생 및 교직원들을 네 명씩 살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치보위부, 내무서원, 열성당원들을 총동원하여 관련대상자를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초,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진격해 오자 북한은 이제 검거한 중요인물들을 처단하는 양민학살을 자행하였다. 중앙당 정치국에서 학살집행에 대한 구두지령이 다음과 같이 내려졌다.

1. 각급 당은 직장을 사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서류 일체를 소각 확인하고 후퇴할 것.
2. 각급기관에 현재 구류중인 반동분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현지에서 즉결 처단할 것.
3. 적이 침공하면 반동으로 도량(跳梁)할 위험이 있거나 그 이상의 우익계 열은 검거되지 아니한 자라도 예방적으로 모두 처단할 것.
4. 장애에 반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북으로 이송할 것.<sup>28)</sup>

신천읍 인근에 위치한 재령읍에서도 이 명령에 따라 무고한 양민들이 약 800명 정도 학살되었다. 즉 유엔군을 환영하려 하였다는 구실로 300여명이 학살당하였으며, 10월 13일 발생한 반공의거로 500여명의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이다.<sup>29)</sup>

북한 인민군은 야간에 후퇴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천읍 거리 요소요소에는 내무서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인민군신분으로 자기의 대열을 떠나 도피한 자, 군사 동원증을 받고도 회피하는 자, 자기의 직장을 무단히 이탈하는 자, 반동적인 유언을 돌리는 자들은 총살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신천읍 곳곳에는 교수장과 총살장 등이 설치되었고, 반동분자로 지

28) 조동환, 전계서, 189~192쪽.

29) “미 제24사단 정기정보보고 자료, No. 98, 101”, (1950. 9. 29~10.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50.

목된 지방유지, 지식인, 종교지도자, 기업가에 대한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산당은 10월 11일 밤 신천내무서에서 서류 일체를 소각하고, 구속한 인원들을 사상범과 일반인으로 구분한 다음 일반인들은 군인으로 징집하고 사상범은 야간을 이용하여 학살하였다.

### (3) 봉기준비

구국동지회와 구월산유격대는 투쟁을 위한 무기확보를 위하여 인민군의 무기를 절취하기도 하였지만 노획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구국동지회가 보유한 무기현황을 보면, 구월산유격대에 경기관총 1문, 기관단총 1정, 칼빈소총 1정, 소련식 장총 12정, 권총 4정, 수류탄 1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천본부에는 99식 장총 2정, 다발총 1정, 권총 3정, 소련식 장총 114정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기부족 문제는 재령광복회의 지원으로 해결하였다. 즉 협조를 유지하고 있던 재령광복회에서 다량의 무기를 확보하였고 그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협조하여 10월 12일 소련식 장총 114정을 이관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신천과 재령에서 10월 14일 새벽에 동시에 봉기하기로 결정하였다.

12일까지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신천읍내에는 내무서원 50명, 정치보위부원 21명, 특별자위대원 40여명 등 함께 110여명이 권총, 99식 장총, 엽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고, 약질당원 약 40여명은 일본도와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읍내에는 약 200여명의 인민군이 주둔 중이었고, 신천온천휴양소에도 약 250여명의 인민군 부상병이 집결해 있었고, 그 중에서 약 10분의 1정도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국동지회는 소련식 장총 30정을 구월산유격대에 분배하여 50명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북부면의 홍태환이 지휘하는 의거군에 30정을 주어 무장시켰으며, 나머지 54정으로 신천읍내의 학생과 일반청년들을 무장시켰다. 그

리고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구월산유격대는 14일 새벽 신천 읍 서측의 척서리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내무서, 군당과 정치보위부를 공격하고, 북부대는 신천읍내에서 잠복하던 학생유격대 일부와 합동으로 정치보위부와 재판소의 서측방을 공격한다. 그리고 읍내에 잠복한 학생유격대와 일반청년대는 덕수국민학교와 서부교회 일대에서 내무서와 정치보위부의 남서쪽에서 공격하기로 하고 봉기시각은 10월 14일 새벽 5시, 공격개시를 알리는 신호는 읍내 서북쪽에 위치한 부영산 산마루에다 봉화불을 밝힘과 동시에 신호총성 3발을 사격하기로 하였다.

#### (4) 봉기의 경과

신천 구국동지회에서 막바지 봉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후 7시경 재령으로 연락차 갔던 연락원이 복귀하여 재령에서는 10월 13일 낮에 벌써 봉기가 일어났다는 뜻밖의 소식을 보고하였다.<sup>30)</sup> 재령 광복회에서 13일에 봉기한다는 연락임무를 띠고 신천으로 파견된 연락원이 도중에 기관원에게 체포되어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sup>31)</sup>

학생대 책임자인 조동환과 그 일행들이 무장을 하고 대책을 의논하고자 광복회 본부로 가는 도중, 교탑리 쪽에서 몇발의 총성이 울렸다. 읍내를 순

30) 재령에서는 광복회를 조직하여 봉기준비를 하던 중에 전선에 무기를 수송하던 인민군 하사를 설득하여 소련식 장총 200여정을 획득하여 10월 12일에는 신천구국동지회에도 100여정을 나누어 주었다. 10월 13일 봉기한 재령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을 점령하고 노동당 본부에서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을 무렵, 후퇴하던 인민군 폐잔부대의 공격으로 보복학살을 당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WAR DIARY, I US CORPS(2 OCT.~8 NOV. 1950), Time of Action 211700, Time Recorded 301130, Authority G-2, Act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42.

31) “UNIT REPORTS-19th Infantry Regiment[제19연대 부대보고철]”, 22 SEP.~31 OCT. 1950, No 97, 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945. 이 보고문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 재령뿐만 아니라 신천과 그 외의 지역에서도 반공의거가 발생한 듯한데 이 자료는 그 같은 사건들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행하던 의거대원이 양민학살 참상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적에게 사격 한 것이 봉기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봉기군은 임시사령부에 모여든 많은 군중들을 학생대와 청년대로 편성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분배하였다. 그리고 구국동지회와 광복회의 여러 간부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오전 11시에 긴급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중 현재 보유중인 실탄만으로 싸우며, 봉기시간을 당일 밤 9시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광복회본부가 있던 곳을 임시사령부로 정하고, 구국동지회와 광복회의 명의로 심상규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각 책임자들은 책임구역으로 향하였다.

10월 13일 21시, 새로 편성된 의거군은 학생대와 일반청년대로 나누어 지역을 분담하였다. 인원이 많은 학생대의 일부는 사령부 부근을 경계하고, 나머지는 읍내 서북방면인 용문방향과 안악방향의 도로, 송화목 고개와 안악목 일대에 배치되었고, 청년대는 읍내 동남방 방향과 교탑리, 척서리 일대에 배치되었다. 재령 봉기군으로부터 탄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노획하였던 82발의 장총 실탄과 다발총 실탄 120발을 분배하여 싸우게 하였다. 봉기군은 주민의 협조를 얻어 불을 밝혔고, 공산당원의 집을 방화하고 그들을 체포하였다.

읍내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불빛이 있는 곳은 의거군 점령지역이고, 깜깜한 곳은 아직 공산당의 만행이 계속되는 곳으로서 덕수국민학교, 신천역, 군민청 부근에서는 일대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밤 9시가 지났을 무렵, 신천읍 상공에 쌍발 프로펠러 경폭격기가 나타나 저공비행으로 읍 상공을 유유히 선회하자 군중들은 봉화불을 들고 환영하였다. 이 비행기는 봉기를 축하하듯 몇 개의 신호탄을 읍 상공 주위에 발사하여 불꽃으로 하늘을 물들인 후 10분 정도 더 비행하다가 남쪽으로 사라졌다.<sup>32)</sup>

봉기군은 거리 곳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전투를 계속하였다. ‘부령부’라고 명칭을 붙인 다른 사무실에는 그동안 체포한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약질당원, 특별자위대원, 인민군과 그들의 가족 등, 약 300여명을 수용하고

32) 야간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B-26 폭격기로 판단된다.

이들을 심사하였다. 봉기군 전투대는 군청앞에 있는 인민군 38경비여단 보급창고를 습격하는 데 성공하여 장총실탄 두 상자, 따발총 실탄 300여발과 그 외에도 많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봉기의 최초 발단이 되었던 교탑리뿐만 아니라 인근의 척서리, 북부면 석당리, 노월면, 산천면, 용진면, 용문면의 봉기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5~600명의 인민군들이 휴양하고 있는 온천리에서는 반동분자 체포를 위한 경계가 엄중하였기 때문에 의거대의 활동이 어려웠다. 의거청년들은 비무장으로 대항하였고 휴양소에 있던 인민군과 노동당원들이 잔혹하게 진압을 하였기 때문에 의거군과 주민들이 많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리의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궁흥면에서는 13일 오후 4시 30분 봉기가 시작되어 30여분 만에 ‘모나지’ 광산과 공산당의 많은 기관들이 모여 있던 삼천온천 일대를 확보하여 자유의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밤 11시가 지날 무렵 구월산 부근 군부대의 인민군들이 두 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삼천온천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 봉기군은 단지 몇 정의 무기와 창으로 악전고투를 벌였다. 그리고 결과는 신천읍으로 지원요청을 위하여 포위망을 뚫고 떠난 3명 외에 봉기군은 대부분 전멸하였다. 삼천온천은 불과 6~7시간 만에 또다시 공산당 치하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300여명의 양민이 학살당하고 말았다.<sup>33)</sup>

10월 13일 구월산유격대에서는 궁흥면에서 활동하던 박명구대장의 요청에 따라 14일에 있을 전면적인 봉기를 준비하도록 제2대대를 하산시켰다. 나머지 제1, 제3대대는 구국동지회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락임무를 띤 요원들이 중도에 공산당원에게 체포된 관계로 11일 이후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궁흥면에서의 봉기계획에 따라 14일 새벽에 제1대대의 일부와 제3대대의 전부는 초리면으로 하산하여 봉기하고, 제1대대의 잔여인원과 공작대, 참모부는 산천면으로 하산하여 봉기군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도중에 패전하여 구월산 방

33) 조동환, 전계서, 316~317쪽.

향으로 도주하던 공산당 요원들과 전투를 치르면서 16일 오후 신천 봉기군 사령부에 도착하였다. 그 후 하산한 유격대원들은 특별학생대를 구성하고 봉기군의 선두에서 용전분투하였다.

봉기 2일차가 되자 봉기군은 잔적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시가전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같은 시기 공산당들도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특별자위대원, 약질당원, 인민군패잔병 등, 약 200여명이 군당본부와 내무서에 집결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sup>34)</sup> 이들은 학생과 양민으로 가장하고 2개 제대로 나뉘어 일개 제대는 군민청 앞 도로로부터 서부교회쪽으로, 또 다른 제대는 송화목 고개로부터 봉기군의 사령부로 접근하였다.

그 중 서부교회 쪽으로 접근해온 인민군은 교회를 포위한 채 난입하여 5년 만에 맞이한 자유와 해방을 축하하고자 교회로 모여든 김익두 목사를 비롯한 신도들과 창문을 통하여 도망치던 교인들을 사살하였다.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탈출한 어린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봉기군 사령부는 학생대와 일반청년대, 2개 제대를 편성하여 서부교회 쪽으로 출동시켰다. 교전이 계속되다 피아가 모두 탄환이 부족해지자 봉기군은 돌격을 개시, 백병전으로 12시 45분 서부교회를 탈환하고 살아남은 교인들을 구출하였다.<sup>35)</sup> 일부 인원으로 뒷정리를 하게하고 봉기군은 사령부로 복귀하여 읍내의 잔적을 소탕하는 임무를 준비하였다. 이때에는 재령봉기에 실패한 일부 의거군이 신천으로 퇴각하여 합류하고 있었다.

사령부에서는 내무서, 군당, 정치보위부를 공격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아침부터 화염병을 200여개 만들어 어린 소년들로 구성된 비무장대원들에게 분배하였고, 실탄은 총을 가진 봉기군에게만 개인당 약 10여발씩 분배하였다. 여학생들도 간단한 응급치료도구를 준비하여 간호대를 구성하였다. 봉기군의 인원 구성은 완전무장한 학생대원 80여명과 일반청년대원 60여명, 비무장대원은 방화용 수류탄을 휴대한 소년대원과 간호대원을

34) 조동환, 전계서, 333쪽.

35) 조동환, 전계서, 344~346쪽.

합하여 약 220여명이었다.<sup>36)</sup> 사령부는 봉기군을 2개 제대로 나누어, 학생대는 조동환의 인솔하에 교탑리 ‘우전마당’에서 전개하여 극장과 역전을 지나서 내무서 및 군당의 동남쪽에서 공격하고 일반청년대는 장재화의 인솔하에 봉기군 사령부로부터 본정통(本町通)과 역전을 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내무서와 군당의 서남쪽에서 공격하기로 하였다.

봉기군이 3층으로 된 내무서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해 나가자, 모든 창문을 통해 적들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적들의 사격이 없는 북쪽으로 접근한 학생대가 화염병을 3층 창문으로 던져 넣자,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의 치솟으면서 당황한 일부 적들은 2층, 3층 창문에서 뛰어 내리기도 하였다. 봉기군은 돌격을 개시, 백병전을 전개하여 내무서의 적들을 섬멸하고 내무서를 장악하였으며, 유치장에 감금된 300여명에 달하는 양민들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내무서에서 뒷 방공호로 통하는 길이 2m, 길이 30m되는 참호에는 300여명의 양민들이 학살되어 매장되어 있었다.<sup>37)</sup>

봉기군과 극적으로 구출된 자들은 쓰러진 봉기군과 탈취한 적들의 총을 쥐고 정치보위부와 군위원회 쪽으로 진격하여 갔다. 내무서에서 도주한 적과 합세한 정치보위부의 반격으로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적들은 군당 쪽으로 도주하였고, 봉기군은 또 한 차례 구타와 고문 등으로 대부분 인사불성이 된 양민 약 200명을 구출하였다. 그 중 건강한 젊은 청년들은 봉기군에 합류하였다.

적들은 군당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군당은 8·15해방 이후 붉은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였을 때에 각 지역마다 건립하게 되었는데, 신천군에서는 신천읍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다 벽돌로 2층 건물을 건립하였다. 봉기군은 신천여자고등학교와 군당 주위에 은신하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군당 주위 200~300m 거리 내에는 건물이나 나무와 같은 은폐물이 없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였다. 그러

36) 조동환, 전계서, 351~352쪽.

37) 조동환, 전계서, 361~362쪽.

나 봉기군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총공격을 가하자 대부분의 적은 무기를 버리고 군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지하 비밀통로를 통하여 북부면 쪽으로 도주하였다. 봉기군은 투항자를 체포하면서 군당을 점령함으로써 신천읍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신천읍 곳곳에는 양민학살 흔적이 남아있었다. 군당 앞 신천여자고등학교 교정에는 공산당이 양민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파놓은 사형집행장이 있었고 양민들의 시체가 700여구에 달하였으며, 정치보위부 지하실에는 물이 1m 가량 채워진 채 총살 및 타살된 시체 90여구가 발견되었다. 군당 방공호에는 창으로 살해한 시체가 40여구, 산채로 흙을 덮어 질식사한 시체가 50여구에 달하였다. 내무서 북쪽에 있는 방공호와 연결된 토굴에는 총살 및 타살된 시체 200여구가 발견되었으며, 방공호에서는 총살한 시체 30여구, 사무실과 유치장에는 타살된 시체 20여구가 발견되었다. 기타 공산당이 도주하면서 집과 도로상에서 학살한 시체가 325구나 발견되었다.<sup>38)</sup> 이 학살의 흔적을 북한은 미군에 의한 학살이라고 오히려 날조 선전하고 있음은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용문면에서도 10월 13일 신천읍과 보조를 같이하여 봉기가 성공하였으며 곧 바로 치안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봉기 3일차가 되는 15일 새벽, 장연 방면에서 퇴각하여 오는 패잔병 1개 중대규모 이상과 내무서원 등 약 400여명이 용문방면에서 침입하였다. 이에 치안대장 권령룡의 인솔하에 190명의 대원이 따발총 7정과 소련식 장총 17정으로 나머지 인원은 창과 농기구 등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기관총 사격으로만 대항하고 적극적인 전투를 회피하면서 신천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그 전날 군당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패주하였던 적도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읍내 도처로 집결하여 다시 군당을 점령하고서 주위의 민가에 방화하고 양민들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용문쪽에서 출현한 약 1개 중대 규모의 인민군이 덕수국민학교 뒷산 고지로부터 읍내로 공격하여

38) 조동환, 전계서, 369~371쪽.

왔다. 외각 각 초소로부터 들어온 연락에 따라 봉기군은 사령부를 중심으로 노획한 소련식 경기관총을 옥상에 1정을 배치하였으며, 덕수국교 뒤 고지방향의 인민군 공격에 대비하여 사직리 일대에도 강력한 방어진을 편성하고, 군당 건물에도 일부의 봉기군을 급파하였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적들은 기관총과 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력을 덕수국민학교 쪽으로 향하였다. 전투력의 열세로 봉기군이 후퇴하자 인민군과 공산도당들도 봉기군 사령부로 접근하여 왔다. 적도들이 약 80~90m 정도로 접근하였을 때, 봉기군 사령부 옥상에 배치된 경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적들을 사살하면서 동작들이 느려졌을 때 봉기군은 돌격을 개시하였다. 살아 달아난 적은 전의를 상실한 겨우 7~8명 뿐이었다.

결사대로 변한 봉기군은 기세를 몰아 내무서를 점령하고 높은 곳에 위치한 군당을 공격하였다. 봉기군은 사령부 옥상에서 내무서 뒷산으로 기관총 위치를 옮겨 놓은 기관총의 지원을 받아 총 돌격을 개시하였으며, 적들은 도주하였다. 이날의 전투로 신천읍은 완전히 평정되었으며, 6년간의 붉은 치하에서 완전 해방되었다. 신천읍내에 군당이 건립된 이후 두 번째로 태극기가 군당 옥상에 휘날리게 되었다. 오후 봉기군은 사령부를 군당으로 옮기고 봉기군을 재편성하였고, 노획한 무기를 분류하고 내부정리를 하는 한편 읍내에도 치안을 유지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서 노획한 무기가 사령부로 운반되어 왔다. 사령부에서는 읍에서 각지로 통하는 길목인 안악목, 송화목, 해주목, 재령목과 주위 고지에다 1개 분대 규모의 경계병력을 파견하여 비무장 청년들과 같이 철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였다.

봉기 4일차인 16일 약 5~6백명으로 추산되는 적들이 신천읍에서 약 2.5km 거리에 있는 신천농업전문학교를 점령한 후 수많은 양민들을 체포하여 원암리에서 학살하는 한편, 일부는 연초공장과 교탑리 동산과 생교산을 완전히 점령하고 신천읍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봉기군에게 보고되었다. 이 정보에 따라 봉기군은 결사대를 2개 제대로 나누어 1개 제대는 생교산을 공격하고, 다른 제대는 동산을 공격하였다. 지원은 사령부 방공호

에 비치한 경기관총 2정과 반땅크총 7정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적들이 공격한 지 15분만에 전투가 개시되었다. 머리에 흰띠로 표시한 봉기군 결사대는 공격 개시 2, 3분만에 동산을 점령하였다. 산개한 적들은 생교산으로 집결하여 대항하였다.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으며, 군중들의 응원을 받은 결사대는 돌격을 개시하여 생교산을 점령하였고, 적들은 신천온천 쪽으로 도주하였다. 사령부에 집결한 봉기군은 약 100여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노획한 두 대의 트럭에 분승하고 도주한 적을 토벌하고자 신천온천으로 출발하였다.

한편 사령부에서는 읍내정리와 장차 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사령부 옥상에는 언제 날아올지 모를 아군기를 생각하여 붉은 페인트로 'SOS'라고 큰 글씨를 써넣었다. 봉기군과 군민들은 방공호를 방어용 참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치고, 실탄정리와 보관, 무기손질과 화염병을 제작하였다. 그 사이 간부들은 기밀실에서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에 재령을 다시 탈환한 공산당이 각 지역상황을 파악하고자 봉기군 사령부로 걸려온 전화 통화로 신천을 제외한 안악, 송화, 장연은 모두 공산치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것은 신천이 고립되었음을 뜻하였다.

오후 2시경 조용하던 신천읍 상공에 경쾌한 폭음과 함께 비행기 두 대가 날아들었다. 두 대의 비행기는 저공 선회비행을 하다가 1m정도 되는 흰 무명천 같은 것을 봉기군 사령부를 향하여 낙하시켰다. 낙하된 물건은 영문으로 된 전서였는데 신천으로부터 동남방 약 30km 떨어진 사리원 근방에 유엔군이 도착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연락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sup>39)</sup> 사령부에서는 즉시 몇 명의 연락원을 사리원쪽으로 보냈다.<sup>40)</sup>

39) "WAR DIARY, I US CORPS(2 OCT.~8 NOV. 1950), Time of Action 181015, Time Recorded 280800, Authority G-3, Act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42.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항공관측보고서에서 신천에 위치한 건물 안마당에 보이는 포로들은 흰기를 흔들고 SOS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미군인 것으로 보임. 미 제24사단에게 즉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음. 비록 봉기군이 기록한 16일과

신천은천으로 원정간 100여명의 봉기군은 신천은천역 600m 지점에서 하차하여 산개한 후 역 방향으로 진격하여 갔다. 신천은천 시가에 잔존한 무려 700여명에 달하는 적은 봉기군에게 맹렬한 사격을 가하여 왔다. 적과의 거리가 100m 정도로 좁혀졌을 때, 봉기군은 경기관총을 위시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고 약 2시간여가 지났을 무렵 적들은 은천휴양소와 양민 200여명이 감금된 창고에 방화한 후 약 1km 정도 떨어진 신천농업전문학교로 퇴각하였으며, 추격한 봉기군에 밀려 북부면의 별관을 거쳐 구월산 방향으로 도주하고 말았다.<sup>41)</sup>

이날 봉기군 사령부에는 구월산 학생유격대의 주력부대가 도착하였다. 그들은 조직적인 훈련을 끝낸 후, 2개 제대로 나누어 1개 제대는 용진, 산천면 쪽에서, 다른 제대는 달천, 삼천, 은율, 송화 등지에서 적을 소탕하면서 신천에 도착한 것이다.

봉기 5일차인 17일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다. 문화면, 문무면, 초리면, 용진면 등은 적들이 패주하여 구월산으로 집결하는 중간 통로가 되는 관계로 치안이 혼란한 상태였고 두라면과 가련면은 적 잔당들이 침입하여 다소 소란스런 정도였다.

그러나 17일 오후 7시경 인민군 대부대가 해주방면에서 벽성군을 거쳐 신천으로 행군해오고 있다는 첩보가 용문면에서 들어왔다. 봉기군 사령부가 비상을 발령하고 전 읍내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탄약을 분배하는 등 전

---

미 제1군단의 전쟁일지에서 기록한 18일과는 2일의 차이가 있지만, 첩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 기록은 신천의거군의 봉기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항공기 관측보고서는 미 공군 기록문서 어디인가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0) “미 제24사단 작전처 전문철”, JN-495, 1950. 10.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43.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첩보내용: 신천(YC1747)에 위치한 건물 안마당에 미군전쟁포로일 가능성이 있는 많은 인원이 있음. 관측은 500피트[150m] 상공에서 관측하였음. 전쟁포로들은 흰 깃발을 흔들고 SOS라고 표현하였음. 관측시간은 18일 10시 15분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군단사령부로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조치사항: 19연대에 통보하여 특수임무부대를 보내도록 하였음.

41) 조동환, 전계서, 410~413쪽.

투준비에 돌입하자 바로 인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인민군은 박격포 포격을 가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수 십대의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봉기군이 있는 신천읍 중심가로 전진해 왔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18일 오전 1시 신천읍 거리는 양단되어 북쪽은 부영산 일대까지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약 50여명의 봉기군만이 있는 사령부에서는 일체의 대응사격을 자제하면서 적들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새벽 3시 무렵, 신천읍을 반 이상 점령한 인민군은 신천읍을 포기한 듯 재령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은 후 봉기군이 적정 탐지를 해보니, 인민군의 병력은 요소요소에 몇 명씩 잠복한 약 100여명으로 경기관총 3~4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사령부를 공격할 것 같았다. 잠시 후 인민군은 사령부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해방탑에다 주력을 정하고 경기관총사격을 선두로 공격해 왔다. 구월산 학생유격대 출신인 김학선이 수류탄을 들고 육탄돌격하여 적의 경기관총을 탈취하자 봉기군은 사기가 올라 잔적을 소탕할 수 있게 되었다.<sup>42)</sup>

용문방면에서도 적의 대부대가 이동해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사령부에서는 신천읍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400~500m에 달하는 장사진을 이룬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으나 약 10분간의 전투로 기세가 꺾인 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남로당 출신인 공산당원들로서 내무서원과 그 가족들이 북으로 도망하던 중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재령으로 이동하는 도중 많은 피해를 입고 신천을 통과한 인민군 패잔부대는 북부면과 안악을 거쳐 진남포를 통과하여 후퇴하려고 하였다. 이들 패잔부대는 황해도도의 주요 간부들과 내무서원 그리고 인민군들로 구성되었지만, 후퇴도중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장거리 행군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부면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북부면 자치회에서는 신천봉기군 사령부로부터 장총 10정과 지뢰 50발을 보급받았고, 전부터 확보하고 있던

42) 조동환, 전계서, 434~438쪽.

따발총 1정으로 그런대로 치안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북부면 봉기군들은 석당교 부근이 공산당의 후퇴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근에다 지뢰를 매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뜻밖에도 30여대에 이르는 자동차의 대부대와 마주쳤다. 처음에 봉기군과 주민들은 그들을 유엔군과 국군으로 오인하고 만세를 부르며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 공산당 요원과 인민군이였다. 무방비상태로 있던 봉기군과 주민들은 적의 사격에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고, 무기 숫자에서 열세했던 봉기군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후퇴하여 방어태세만 갖추었다.

적 자동차 대열이 석당교로 접근하였을 때, 지뢰가 폭발하면서 자동차 두서너 대가 파손되자 뒤따르던 차들도 급정거를 하면서 차에 탔던 무리들은 뛰어내려 주위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봉기군과 주민, 노월면의 봉기군까지 합세하여 혼비백산한 적들을 동창리, 기탕다리와 서호리 저수지까지 추격하여 소탕하였다. 이때 생포된 적들 가운데는 황해도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비서, 해주교원대 학장, 황해도 소비조합 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3)</sup>

10월 18일, 신천읍내에 위치한 사령부에서는 봉기군이 이날까지 전사한 간부들을 보충하고 전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다. 신상규 사령관과 2명의 부사령관, 작전참모와 동원참모 그리고 지도원 6명, 중대장과 부중대장 그리고 1, 2, 3소대장, 자치회 간부로는 회장, 총무, 5명의 고문, 감찰대장과 20명의 감찰부원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14개 면마다 자치회장과 치안대장, 중대장을 선정함으로써 신천군은 이제 자치가 본격 실시되었다.

10월 18일 저녁, 유엔군이 총 한방 쏘지 않고 신천읍에 입성하였다. 신천읍 주민들은 이들을 환영하였다. 유엔군의 대열은 봉기군 사령부에 도착하자 한 장교가 뛰어내려와 환영하는 간부들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쉰 다음, 대열을 정돈하더니 안악 방향으로 떠나버렸다.<sup>44)</sup>

43) 조동환, 전게서, 442~446쪽.

당시 미 제19연대의 전문철을 살펴보면 “신천에 1개 소대를 배치하라”는 내용과 “신천에서 1개 소대가 환영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sup>45)</sup>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미 제24사단의 입장에서는 평양입성을 위한 진격속도 경쟁에 치중하였으며, 북한군과의 대규모 교전이 없는 지역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황해도에서는 해주시 군정을 위한 일부만이 있었을 뿐 특별작전을 위한 한국군대의 주둔이나 치안을 위하여 남쪽으로부터 한 국경찰이 투입된 사실이 없었다.

### (5) 보복과 학살의 악순환

신천에서만 800여명에 달하는 양민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인근 해주형 무소에서 1,200여명, 안악중학교 강당과 지하실에서도 500~600여명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참변에 대하여 순진한 양민들도 피의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공산당의 만행을 답습하는 복수가 진행되었다. 치안대들에게 있어서도 부역자 숙청과 잔적 소탕이 중요한 임무가 된 것이다. 피의 복수는 특히 반공의 전위인 구월산지구 일대가 가장 심하였다.

그러나 의거군은 이러한 복수가 비인도적임을 깨닫고, 공산잔당들의 역습을 방어하고 동족상잔의 폐해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자치회를 군청으로, 치안대는 경찰서로 개칭하고 군수와 경찰서장, 면장, 읍장, 이장 등 간부들을 선거로 선출하였다. 당시 신천군 군수는 이맹영이었고, 경찰서장은 신상구가 선출되었다. 인근의 재령군, 안악군, 은률군, 송화군에도 이러한 체제가 구성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

44) 유엔군 소속부대, 인솔자 계급 성명, 부대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어 다소 어렵다. 이는 첩병소대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며 통역을 할 수 있는 카투사나 군속이 없었던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5) “미 제19보병연대 전문철”(1950. 9. 29~10. 30), JN. 407, 4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2546.

존속된 자치적인 지방기구인 셈이었다.<sup>46)</sup>

10월 13일 이후 구월산은 그 주인이 패주하는 인민군과 공산당원들의 집결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봉기군이 잔적들의 습격을 방어하고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47)</sup> 북한측 출판물 역시 당시 북한측은 강점 지역에서 지방당조직 지도하에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1950년 10월 26일 황해도 서남부지역에서 해주, 은율, 안악, 재령, 신천을 비롯한 10여개 시, 군들에서 모인 당원들과 인민군들의 일부 구분대들을 모아 구월산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으며,<sup>48)</sup> 그 근거지는 구월산의 월정사 등이 자리잡고 있는 ‘노루메기’에는 지휘부가 자리잡고 7,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9)</sup>

## 5. 공산군의 보복과 의거군의 유격투쟁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반도 통일의 희망은 사라지고 남쪽으로 피난민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에도 구월산 주변 봉기군들은 구월산에 잔류한 인민군과 공산당 잔적들을 소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1950년 12월 7일 국군 제1사단 수색중대가 구월산 주위 주민들의 철수를 돕기 위하여 사리원, 재령을 거쳐 신천에 도착하였다.<sup>50)</sup> 이로부터 2일간

46) “WAR DIARY, I US CORPS(2 OCT.~8 NOV. 1950), Time of Action 192100, Time Recorded 281500, Authority G-2, Act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42.

47) “HISTORICAL REPORT, G-2 SECTION, I US CORPS(1-31 OCT. 1950), Period Covered: 210001 Oct to 212400 Oct 19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SN 124.

48)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평양: 1983년), 108쪽.

49) 강석희, 상계서, 111~112쪽, 171~172쪽.

50) 보병 제1사단, 『전진역사』(1966), 31쪽에 의하면, ‘전과 1950년 12월 7일 사단 수색중대는 신천 침입을 기도로 구월산에 잠복중인 괴뢰군 패잔병 적 2개 대대를 완전히 포착하여 이를 공격, 사살 596명, 생포 6명이라는 전과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봉기군은 국군과 합동으로 신천, 재령, 안악군의 주민 대부분의 철수를 보호하였고, 봉기군 중 치안대만이 남아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잔류하였다.

군민들이 완전히 피난하였다고 판단한 12월 9일에 나머지 봉기군들도 해주로 철수하였다. 해주는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행정당국에 의한 지원과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난민들을 해주 시내로부터 추방하기에 바빴다. 피난은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피난민 대열에 편승하여 적의 대부대가 침투할 수 있고 유엔군이 폭격하면 해주시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었다. 신천, 재령, 안악의 의거군들은 다시 피난민들을 보호하면서 이미 적도들의 치하가 되었을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였다.

12월 중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북한 전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재령강 서쪽의 황해도 서부지역만은 봉기군에 의한 항쟁으로 인하여 제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북한 공산군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1개 사단병력을 동원하여 사리원에서 재령과 신천을 공격하여 왔으며, 구월산일대의 북한군 잔당들도 봉기군을 기습 공격하여 왔다. 여기에다 피아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군기의 공중폭격 속에서 봉기군은 악전고투하였다.

12월 19일 오전 8시, 신천봉기군의 김장성 경찰서장과, 안악의거군의 김유성 대장의 지휘로 신천탈환전이 개시되어 피의 혈전을 치른 결과 오후 3시경 드디어 신천을 탈환하였다. 이후 전력의 열세로 인하여 봉기군은 부분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미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12월 15일 임진강 북안에 도착하고 있었다.

12월 21일 오후 2시, 인민군 1개 대대 병력이 온천면 추산리와 운봉리에 출몰한 것을 발견한 온천봉기군은 즉시 이 사실을 신천봉기군 본부로 연락하고 대기중이던 신천봉기군과 안악봉기군, 그리고 해군 503함정 일행과<sup>51)</sup>

51)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해군사 행정편 제2집』(단기 4290[1957]. 12월) '부록' 일지 편 5쪽에 의하면, "단기 4283년(1950년) 12. 22 西海移動中이던 503艇이 海州灣에서 行

현지로 출동하여 적을 격멸하였다. 21일 밤 해군 503함정 일행은 해주로 복귀하고, 봉기군은 온천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피난민과 봉기군은 신천읍으로 철수하였고, 피난민에 끼어 신천읍에 들어온 적들로 인하여 다시 용문면과 남부면으로 철수하였다. 무장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인민군 정규부대와와의 전투에서 의거군이 승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함정이었던 503함이 신천까지 출동하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16일 503함정은 서해상에서 소해작업을 실시하던 중 해주항 경비차 입항하여 황해도 간부들로부터 서해지구의 위기와 봉기군의 역경을 알게 되었고, 함장이 직접 배의 중기관총과 대원들을 트럭에 싣고 인솔하여 신천지구로 출동하였으며, 의거군의 선두에서 전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sup>52)</sup>

12월 22일 새벽부터 의거군은 다시 신천읍 탈환을 위해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21일에는 해주시가 적에게 함락되었고, 적들이 용진반도로 공격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봉기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벽성군 이목, 태탄을 거쳐 용진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철수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북부면, 노월면, 산천면, 용진면 봉기군은 고립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하다 북부면 봉기군만 철수하였다. 노월면과 산천면, 용진면 봉기군은 고향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철수하지 않고 구월산을 중심으로한 구월전투사령부와 두라산을 중심으로한 두라전투사령부로 재탄생하여 결사항전을 계속하였다. 인민군 38여단의 대대적인 공격에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봉기군은 야간만큼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용진으로 철수한 신천과 안악의 봉기군은 용호도와 순위도를 거쳐 1951년 1월 21일 해군 309함정을 타고 백령도로 이동하였다.<sup>53)</sup> 이후 휴전시까지

方不明(艦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503함이 신천지구로 출동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52) 조동환, 전계서, 503~504쪽.

지 서해도서에서 유격작전에 참가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의 유격작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편찬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sup>54)</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해제된 문서중에서 미 제1군단과 미 제24사단에서 남긴 기록문서들을 수집하였다. 비록 미 공군의 항공관측과 관련된 문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필자는 이번에 확보한 문서들 중에서 인천 반공의거와 관련된 자료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고에서 그 상관관계를 밝혀 북한측의 주장은 날조한 것이며, 당시 의거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해본대로 인천에서 미군이 양민을 대량학살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허구이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좌우익에 의하여 자행된 복수극에 의한 상호살상의 피해를 감추고 이를 봉합하고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왜곡한 것임이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명이다.

## 6. 맺 음 말

1950년 10월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북한군 패잔병과 좌익계렬라에 의한 습격으로 혼란과 국지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sup>55)</sup> 춘천과 가평 같은 지역은 일시적으로 북한인민군 패잔

53)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제1집, 작전편, 149~150쪽.

54)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년), 251~263쪽, 374~380쪽.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비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I권(서울, 2001. 6), 262~270쪽.

‘제8장 인민유격대 활동’편을 참조할 것. 이 책은 북한측의 입장에서 당시 패잔병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병에 의하여 점령당하기도 하였다.<sup>56)</sup> 하지만 구월산 일대에 많은 인민군 패잔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지역에서만은 국군과 유엔군이 토벌 작전을 위하여 별도의 부대를 운용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또한 북한도 황해도민의 봉기에 대하여 별다른 전투성과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황해도지역(황해남북도)에서는 구월산, 곡산, 지남산, 설화산, 국사봉, 천곡면 인민유격대를 비롯한 많은 유격대들이 조직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구월산이 위치한 황해도 지역에서는 유격전에 의한 성과를 전혀 기록해 놓지 않은 점으로 봐서 이 지역에서의 전투성과는 아주 미약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생존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sup>57)</sup>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은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한 반공의거군의 역할이 컸다. 황해도지역에서의 반공봉기군이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에 기여한 전술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유엔군과 국군이 인민군 패잔병의 소탕작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투력을 절감하도록 한 공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수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한 측면이다. 당시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하면서 많은 군수물자를 적시에 수송하여야 했는데도 이 짧은 기간 중에 황해도 지역에서 군 수송물자에 대하여 북한군 패잔병이나 게릴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병력을 절약하고 북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황을 유리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만약 이 지역에서 인민군 패잔병과 동조자들에 의하여 많은 파괴와 습격이 있었다면 적어도 보병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투입되어야 하였을 것이

56) 大韓民國國防部, 『韓國戰亂一年誌』(단기 4284년[1951] 10), B50-B72쪽에 의하면, 1950년 10, 11월중에만 후방지역에서 10월 18일 강릉, 10월 21일 김화, 10월 28일 伊川, 11월 7일 淸平, 11월 10일 구만리발전소, 11월 12일 전주, 11월 18일 춘천, 11월 23일 철원, 11월 26일 가평, 11월 30일 철원·가평 등지에서 적 패잔병에 의한 습격 및 교전이 있었다.

5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통사』(하)(평양: 편자출판, 1987년), 430~436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26쪽, 113~121쪽, 179~180쪽.

며, 당시 후방지역 토벌작전을 수행한 부대를 고려하여 본다면 이러한 기여도는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전쟁이 계속되면서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장소를 개성에서 멀지 않은 판문점으로 선정한 것은 황해도지역에서의 반공의거에 의한 의거군의 세력을 말살하여 후방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공산측의 정치·전략적 이해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며 이것은 공산측 관련문서가 공개될 때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선현들이 조국독립을 위하여 감행한 6·10 만세사건이나 3·1독립운동, 각 지역의 학생의거 등과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 중국, 소련에서의 무장독립투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사실들은 모두 역사적 기록에서 결코 누락시킬 수 없는 것이다. 황해도에서의 반공의거 역시 3·1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한 반공의거이자 학생운동이다. 이들이 헌신한 고귀한 피와 생명은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한 대한민국에 대한 헌신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는 이들의 공적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 편린을 모아서 이들의 공적사실을 재구성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이것은 역사에서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황해도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의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에서의 반공투쟁도 재조사하여 그 공적과 과오도 역사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교훈을 주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사명인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3. 7,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신천, 10·13반공의거, 재령, 미 제19보병연대, 미 제24보병사단

<ABSTRACT>

A War Historical Significance through the Re-illumination  
on the *Sincheon* 10·13 Anti-Communism Movement

Ryu, Tae-ha

*Sincheon* is located in *Hwanghae* Province, North Korea. By the North Korean Propaganda, there is a Military Museum Which is for the memory of massacre killed by the US troops during Korean War.

Is it true or false? If the accident of massacre was true, who did it, or why should it be arisen? To judge it, my paper was prepared. Anti-communist says that movement was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n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troops had marched to the North.

Now, I followed the book, *A Torch of Anti-communist* written by *Cho Dong-hwan* who participated in the Anti-Communism Movement during the period. And I'd surveyed all the documents of the US troops who joined the military operations during the period. Especially the documents of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and his units, and the US I Corps from 13 October to 30 October 1950 were checked preciously.

The *Sincheon* Anti-Communism Movement arose in 13. October 1950 during the Korean War. But those days all the efforts and object of the units who marched to north were to step first in *Pyeongyang*, Capital of North Korea. So they didn't give a proper efforts to help the movement. They just passed by because there in *Sincheon* was not big combats. So they had written a little about *Sincheon*, but it must be true that they had

known the accident of 'Hurrah-movement'.

In conclusion, the massacre of *Sincheon* was made not by the US troops but the mutual revenge between left and right. North Korea have been tried to conceal the interim problem, and to make propaganda the massacre of US troops. The activities of Anti-Communism Movement had made the UN Forces save troops and easy material transportation.

As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participated in the Korea War, the front line was pulled back the South in spite of areal profit in *Hwanghae* Province. And the Truce Talks in *Panmunjeom* have made *Hwanghae* Province the land of oppression.

Key Words : *Sincheon*, Anti-Communism Movement, Chaeryong, US 19th Infantry Regiment, US 24th Infantry Division

K C I